

# '5·18 유린' 박승춘 보훈처장 마침내 사퇴 6년 억눌린 5·18 기념식 제 위상 되찾는다

### '임 행진곡' 제창 금지·11공수 광주 시가 행진 추진 등 모독 "올 기념식 박승춘 안 보니 속이 다 시원" 지역민들 대환영

광주·전남에 '박승춘 스트레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별 수리하면서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아래 철저히 광주·전남 민심을 외면하고 5·18을 유린해온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막을 내리면서 올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은 제 위상을 되찾고 성대히 치러질 것이란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날 황 총리와 부처 장관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 가운데 황 총리, 박 보훈처장 사표를 11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황 총리의 경우 후임 총리가 지명됐다는 점에서 이상할 게 없다는 관측이나 박 보훈처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와대는 박 처장의 사표를 선별 수리한 의미에 대해 "박 처장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적도 있어서 새 정부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리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이번 5·18 기념식에서 박승춘을 안보게 돼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와대가 밝힌 대로 지난 2011년 임명된 박 전 보훈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됐으며, 5·18기념식에서 5월단체와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11공수 광주 시가 행진 추진 등 모독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장에서 유족 등 5월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쫓겨나는 모습. 당시 박 처장이 웃으며 식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김진수기자 jeans@

은 제 위상을 되찾고 성대히 치러질 것이란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날 황 총리와 부처 장관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 가운데 황 총리, 박 보훈처장 사표를 11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황 총리의 경우 후임 총리가 지명됐다는 점에서 이상할 게 없다는 관측이나 박 보훈처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와대는 박 처장의 사표를 선별 수리한 의미에 대해 "박 처장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적도 있어서 새 정부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리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이번 5·18 기념식에서 박승춘을 안보게 돼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와대가 밝힌 대로 지난 2011년 임명된 박 전 보훈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됐으며, 5·18기념식에서 5월단체와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11공수 광주 시가 행진 추진 등 모독

곡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을 고집하는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다.

박 처장 체제의 보훈처는 노골적으로 5·18을 홀대, 모독해 지탄받아왔다. 박 처장은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5년째 무시했다. 지난 2015년에는 5·18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샀다. 지난해 6월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진압한 11공수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물의를 빚었다.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박승춘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경건하게 치러져야 할 5·18기념식은 '정부 따로, 시민 따로'의 반쪽짜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탓에 국회는 수차례 박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국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을 고집하는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다.

박 처장 체제의 보훈처는 노골적으로 5·18을 홀대, 모독해 지탄받아왔다. 박 처장은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5년째 무시했다. 지난 2015년에는 5·18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샀다. 지난해 6월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진압한 11공수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물의를 빚었다.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박승춘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경건하게 치러져야 할 5·18기념식은 '정부 따로, 시민 따로'의 반쪽짜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탓에 국회는 수차례 박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학 달라진 보훈처

11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물의를 빚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연합뉴스

결국엔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문 대통령은 "집권하면 즉각 책임을 묻겠다"고 짧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호남인의 분노가 크다. 집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박 보훈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결집 여부도 지역에선 관심이었다. 5·18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7주년 5·18기념식이 치러지기 전 박

처장의 조속한 사퇴를 이끌어내 '5·18 홀대, 반쪽짜리 5·18기념식'을 끝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선별 수리한 것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이 앞서 광주를 찾아 공언한 대로 5·18관련 공약이 현실화되고 그 위상 또한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권위원회 위원장, 난다나 마나통가 스리랑카 캔디인권사무소 대표 등 아시아 각국에서 80여명의 인권운동가가 참여한다. 트라우마 국제회의와 풀뿌리지원 워크숍·전국마을론 컨퍼런스 등에도 300여명의 국내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2017 촛불혁명'을 주제로 김덕진 박근혜정권퇴진행동 사무국장의 특별강연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5·18 전야제와 국가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5·18 현장 탐방, 전통문화 체험, 역사·문화 탐방에도 나선다. 이들은

포럼을 마친 뒤 한국 상황과 아시아 인권현황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5시에는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올해 수상자인 태국 학생운동가 자투팟 분팻타라락사(26)씨는 왕실 모독 혐의로 수감돼 가족이 대신 참석한다.

1999년부터 열린 광주아시아포럼은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를 토론하고 협력을 모색해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조선대, 교육부 개방이사 추천 요청 거부

### 교육부 직권 추천 방침...또 다른 갈등 예고

조선대가 교육부의 조속한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직권으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으로, 대학 구성원·이사회 간 갈등이 교육부까지 개입하는 모양새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조선대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 위원회를 관할하는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육부의 개방이사 추천 요청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조선대 대학평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12일까지 개방이사 후보자 6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조선대는 이와관련, 10일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 협의회(대자협),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공익형 이사제 도입 논의를 배제한 채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정해진 기한 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개방이사 후보자 6명을 추천받은 뒤 기존 이사회를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이사회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과 불신을 고려하면 자칫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2월 25일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상태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 간 갈등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 구성원들은 기존 이사회 임원들의 퇴진과 개방이사 선출 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정관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60대

###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에겐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교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해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량 또한 너무 많거나 적지않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4년 10월16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8층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목을 졸라 아내 A(당시 58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유씨는 부부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

## 밤낚시 70대 보트 전복

### 완도해경 출동 구조

혼자서 밤낚시를 즐기던 70대 남성이 타고있던 보트가 전복되는 위기에 처했으나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광주교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1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9시50분께 장흥군 회천면 대리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박모(70)씨가 타고 있던 1.35t 모터보트인 S호가 전복됐다.

박씨의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50t 급 경비정과 해경구조대를 출동시켜 전복된 선박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박씨를 찾아 구조를 완료했다. 구조된 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 후 안정을 취했으며, 전복된 S호는 대리항으로 예인 후 인양을 완료했다.

완도해경은 갑자기 풍 소리와 함께 보트가 전복됐다는 김씨의 증언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 술집 주인에 시비 건 혼술 50대...말리던 손님이 폭행



술집 주인에 시비를 건 혼술 50대...말리던 손님이 폭행  
○...술집 주인이 폭행한 50대 취객과 이를 말리려다 취객을 폭행한 손님들이 모두 경찰서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53)씨는 이날 오전 12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오지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건 술집 주인의 원곡 눈 부위를 짓가락으로 찔렀으며,

이를 지켜보던 손님 박모(50)씨 등 2명은 정씨의 폭행을 말리려다 정씨를 때린 혐의.

○...박씨 일행은 정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정씨를 수회 폭행했는데 경찰은 "정씨와 박씨 일행 모두 술을 많이 마신 탓에 폭행에 휘말린 것 같다. 3명 모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은재기자 e16621@

## '저항하라! 1980 광주에서 2017 촛불로'

### 광주아시아포럼 16일부터 나흘간 개최

'2017 광주아시아포럼'이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광주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저항하라! 1980 광주에서 2017 촛불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2017 광주아시아포럼을 개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광주트라우마센터·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광산공공의지원센터 등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에는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실 파쿠렐 전 네덜 국가인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연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 매매

□ 10층 중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상무지구 중심상업내

□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300만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전대 정문 2분.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 내부갈끔 )

▶ 매가 2억4천만 (용 1억6,500만)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1.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2.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정가 6천 → 최저가 2천7백
3. 상무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정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4.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5.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① 경매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 ② 경매 실전 전문반

실전 교육등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